

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: 본전과 천장화

본전은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의 중심적인 건물이자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.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(1543~1616)와 함께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조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(1394 년 사망 추정)가 모셔져 있습니다. 본전은 1931 년에 세워진 곤젠즈쿠리 양식 건물로 에도 시대(1603~1867)의 지배 계급이었던 무사들이 선호했던 신사 양식입니다. 이 양식은 배전, 제문전, 본전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. 이 가운데 배전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. 배전의 격자 천장에는 도요타시에 거주하는 옷칠공예가, 안도 노리요시(1947 년생)가 2 년에 걸쳐 그린 108 장의 화초 그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. 이는 2015 년에 행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400 년제 메모리얼 사업의 일환입니다.

108 장의 그림은 삼나무에 등글게 그려져 있고, 투명한 옷칠만을 사용해 나뭇결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. 그림의 둥근 가장자리와 천장의 격자에는 검은 옷칠이 사용되었습니다. 흰 매화, 붉은 매화, 대나무, 국화 등의 식물이 그려져 있는데, 사계절을 표현하는 4 곳에 이 그림들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. 동쪽 끝 중앙에는 일출이, 서쪽 끝에는 보름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네 모서리에는 마쓰다이라와 도쿠가와 가문 문장의 모티브가 된 후타바야오이(*Asarum caulescens*, 쥐방울덩굴과의 다년초)가 그려져 있습니다. 가문 문장에는 잎이 두 개인 후타바야오이의 신화 속 모습인 세 잎을 가진 ‘미쓰바야오이’가 그려져 있습니다. 또한, 실제 후타바야오이가 본전 밖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